R&R 28(2021) 215-248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8.215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현대적 의의 : 교회와 국가 관계의 관점에서

박태현
(총신대학교, 부교수, 실천신학)

Ⅰ. 들어가는 글
Ⅱ. 펴는 글
Ⅲ. 나가는 글

[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영역주권을 선언하였는데, 이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삶과 사상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성경적 가르침이다. 교회와 국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각기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와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역주권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사회적 영역들의 상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영역 내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풍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 상대자로 알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률에 따른 국가 주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국가가 불법적으로 교회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교회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의 방식은 반드시 섬김과 자기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 게다가 교회는 자신의 영역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국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도덕의 장력을 든든하게 길러야 한다.

키워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 교회와 국가, 법률, 자유를 위한 투쟁, 도덕적 장력

논문투고일 2021.07.19.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I. 들어가는 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2천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심지어 성경의 복음서조차 유대 총독 빌라도와 예수 사이의 왕권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며 예수의 왕권을 힐문(詰問)했으나,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대답하며 진리의 나라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요 18:33-38). 인류 역사는 인간이 권력에의 갈증, 지배욕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은 영향력, 권력, 그리고 지배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기를 꾀하였고, 결국 교황이나 황제에게서 이 패권의 수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1] 4세기 고대 교부인 힙포의 어거스틴(354-430)의 『하나님의 도성』과[2]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두 왕국론』[3]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주제로 다룬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모 정당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내정자 주00씨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의 포스터 작성을 계기로 내정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4] 이것 역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민감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국가 방역이라는 이슈와 교회의 주일예배 집회라는 가치관의

---

* 본 소논문은 2020년 11월 26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학술포럼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의 - 교회와 국가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Abraham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vols (Kampen: J. H. Kok, 1916-17), I, 430. H.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Amsterdam: Dagblad en Drukkerij De Standaard, 1934), 550-53.

2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역사신학논총」 제7집 (2004), 11-42. 안인섭, "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개혁주의적 고찰: 어거스틴(354-430)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3 (2017), 198-222.

3 김명혁, "루터의 두 王國에 대한 槪念 - 政治倫理的 側面", 「성경과 신학」 제1권 (1983), 153-172. 권태경,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과 역사 이해", 「성경과 신학」 제51권 (2009), 111-137.

4 유태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혁논총」 54권 (2020), 78.

충돌로 표출되었다.[5] 국가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불법 집회라고 단정하고 행정조치라는 공권력을 통해 예배를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교회 역시 이에 맞서 6.25 한국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기독교 신앙의 근본 행위인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혼란은,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교회 모두를 질책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조장되었고, 심지어 국가와 종교 모두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이런 혼란은 교회 내 신자들 사이에서도 국가 방역과 주일 대면예배를 두고 찬반의견이 갈리는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6]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해 서거 100주년을 맞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대사회에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학술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7]

---

5 일례로서 2021년 1월 현재 부산 세계로교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사이의 갈등을 언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월 11일, 15일, 및 20일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참조하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1/SBZN33DCIRDXVOVTALC3DVFB3M/ 2021년 1월 11일 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5/743ZKNGHCNE4FHB73FASVO76IU/). 2021년 1월 15일 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9/QM23GCTRYVE6PED7BSCUAYX4UE/ 2021년 1월 20일 접속. 2021년 2월 1일 질병청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은 멘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와 주류 언론사들은 "교회발 코로나"라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코로나 감염의 희생양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회발 코로나"라는 악의적 프레임은 개신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64

6 김명배는 20세기 후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정치 참여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진보 진영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며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하였고, 보수 진영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며 정교 분리를 주장하였"고, "복음주의 진영은 양 진영을 비판하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아우르는 통전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또한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 참여는 신학적으로 16세기 칼빈의 '하나님 주권론'에 정초하고 19세기 카이퍼의 '그리스도의 영역주권론'을 통해 20세기 사회 참여의 대표적 인물인 손봉호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평가한다. 김명배,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 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선교와 신학」 20집 (2007), 127-154, 특히 128-30, 151.

7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동대학교는 공동으로 지난 2020년 10월 20일 "한국 교육이 나아

무엇보다도 "신적인 것에 기초한 실재로서, 공공의 영역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8]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에 언급한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 특히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의 건설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확신한다.[9] 물론 19세기 말 인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주의(Modernism)의 네덜란드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 사이의 약 120여년의 긴 역사적 간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쉽게 무시할 순 없지만,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삶의 원리로서 시대와 장소,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카이퍼는 '신앙의 초월성'과 동시에 '삶의 다원성을 포괄'하는 영역주권 이론으로 19세기 신학적 자유주의를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정통주의를 도전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10] 무엇보다도

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개혁신학회는 지난 2020년 10월 24일에 "아브라함 카이퍼: 복음, 그리고 삶과 세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치렀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64 2020년 11월 7일 접속. 2020년 11월 7일에는 사랑의교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예배와 "카이퍼의 영역주권",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 "카이퍼와 사회개혁"의 주제 강연도 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671 2020년 11월 8일 접속. 이은선은 2021년 5월 29일 안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에서 한국에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 사상의 수용과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은선, "한국교회의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사상 수용과 연구",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향", 자료집, 32-54.

8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이의현·정단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서울: SFC, 2019), 91. 빈센트 베이코트의 이 책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창조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영역에의 참여를 논의한다.

9 브랫은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교연설이 사회철학과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진단한다.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130. 리처드 마우는 비록 카이퍼가 죽은 지 한 세기가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기독교의 문화적, 정치적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옮김,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SFC, 2015), 15.

10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132. 145, 150. 이국운은 이 소논문에서 카이퍼가 한국 개혁주의 진영에서 제한적으로 소개되고 또한 단지 영웅적으로만 소개되는 것에서 벗어나 카이퍼의 실존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카이퍼의 사상과 영향력이 개혁주의 진영 밖으로도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규는 카이퍼가 '일반은총'(gemeene gratie)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명령(창

카이퍼 자신이 지적하듯이 칼빈주의는 "그저 **교회적, 교의적** 운동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의 밑바탕에까지도 자신의 근본 사상을 깔아 놓"음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김영한은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는 교회에만 머무는 신학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고백하는 공공신학"이라고 바르게 천명한다.[12]

카이퍼는 칼빈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동시에 시대적 환경에 맞는 칼빈주의의 갱신을 꾀하였던 20세기 네덜란드 신칼빈주의(neocalvinisme) 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1894년에 출간한 자신의 『거룩한 신학백과』(*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에서 "이미 지난[18] 세기 이후로 게을러 잠든 개혁신학을 다시금 흔들어 깨워 19세기 말 발전된 인간의 의식에 친밀하게 만들어야 할 강한 필요를 느꼈다"고 고백한다.[13] 그는 칼빈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단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기를 추구했던 기독교 문화 변혁자요 혁명가였다.[14] 네덜란드 역사가인 얀과 안니

1:28)의 수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이상규,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갱신과 부흥」 10 (2012), 188-91.

11 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n.d.), 69, 168. 한글 볼드체는 원문의 알파벳 강조체를 의미한다. 이 책은 최근에 네덜란드 원전에서 한글로 번역되었다. 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박태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군포: 다함, 2021), 138-39, 304-5. 이상웅은 카이퍼의 『칼빈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로서 단지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탁월한 해설이 아니라 종교를 비롯한 인간 삶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2):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분석적 고찰", 「신학지남」 제 84권 2집 (2017 여름호), 115.

12 김영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 공공신학으로서의 칼빈주의",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향", 자료집, 29.

13 Abraham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94), I: vi. M. E. Brinkman & C. van der Kooi, *Het calvinisme van Kuyper en Bavinck* (Zoetermeer: Meinema, 1997), 10-14. 동일한 맥락에서 바빙크(H. Bavinck, 1854-1921) 역시 개혁신학이란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이라고 선언한다. Herman Bavinck, *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G. Ph. Zalsman, 1883), 47.

14 클랍베이크(J. Klapwijk)는 카이퍼를 '문화 해방의 승자(勝者)'(a champion of the emancipation of culture)로 명명한다. Jacob Klapwijk, "Abraham Kuyper on Science, Theology, and Universi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Sioux Center: Dordt College Press, 2013), 235.

로메인(Jan & Annie Romein) 부부는 카이퍼를 '민초(民草)들의 종지기'(de klokkenist der kleine luyden)로서 네덜란드 문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기록한다.[15] 과연 카이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한 교육자, 두 개의 신문사 편집을 맡은 언론인, 네덜란드 교회 분열('돌레안찌'[Doleantie, 1886])과 통합 운동을 이끈 교회 지도자, 네덜란드 수상으로 재임(1901-1905)한 정치가였다.[16] 카이퍼의 이 모든 화려한 이력은 카이퍼 자신이 주장한 영역주권의 사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했음을 보여준다.[17] 그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그의 유일한 인생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네덜란드 사회와 문화 속에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자신의 나이 60세가 되는 1897년 일간지 「더 스탄다르트」(*De Standaard*)의 편집장 재직 25주년 기념식에서 자신의 인생 목적과 비전을 선명하게 고백한다.

> 이[주님의] 규례들을 탐구하고, 다시 해설하고, 선명하게 선언하는 것, 즉 내가 선포한 더 고상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한 지혜를 사람들

---

15 Jan & Annie Romein, *Erflaters van onze beschaving* (Amsterdam: E. M. Querido, 1976), 747-70.

16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를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을 보라. L. Praamsma, *Let Christ Be King*, 이상웅·김상래 옮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있는사람, 2011). Frank Vanden Berg, *Abraham Kuyper*, 김기찬 옮김,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나비, 1991). Jeroen Koch,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Amsterdam: Boom, 2006).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Jan de Bruijn, *Abraham Kuyper: Een beeldbiografie* (Amsterdam: Bert Bakker, 2008). Johan Snel, *De zeven levens van Abraham Kuyper* (Amsterdam: Prometheus, 2020). 스넬(Snel)은 1912년 10월 21일에 기록된 카이퍼의 4장짜리 메모 자서전에 기초하여 카이퍼의 생애를 일곱 가지 삶으로 묘사한다: 알프스 등산가, 세계 여행가, 유명한 연설가, 학자,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정치가.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신학지남」 제 80권 2집 (2013 여름호), 201-210.

17 Timothy I.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315. 베이코트(Bacote)는 카이퍼의 다양한 생애 이력을 "문화와 정치에 관한 자신의 신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카이퍼는 "공공신학의 화신(incarnate)"이라고 명명한다. Bacote,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10-11, 227.

> 의 마음에 심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그 규례들에 대한 지식과 실재 가운데 그 규례들을 따른 삶만이 우리 국민을 다시금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열망이었으며, 내가 이 25년 동안 「더 스탄다르트」(*De Standaard*)에서 구현하려고 추구했던 유일하고, 원대하고, 비범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원대한 인생 목적을 겨냥하지 않은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 모든 순간은 심지어 나에게 상실된 것이요 낭비된 것으로 비치기조차 했습니다.[18]

카이퍼 자신의 '모든 열망'이자 '유일하고, 원대하고, 비범한 사상'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규례들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얻는 실제적 행복과 참된 자유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카이퍼의 이러한 열망과 비전이 담긴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880)[19]과 『정치 강령』(*Ons Program*, 1879)[20], 그리고 카이퍼의 핵심적 사상의 요체인 『칼빈주의』(*Het Calvinisme*, 1898)를 중심으로 먼저 카이퍼가 개진한 영역주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영역주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 영역주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

18 Abraham Kuyper, "De Rede van Dr. Kuyper", in *Gedenkboek* (Amsterdam: G. J. C. Herdes, 1897), 72-73.

19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신학지남」 (2014 봄호), 180-207.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2)", 「신학지남」 (2014 가을호), 231-255. 이 두 개의 소논문은 다른 글과 함께 편집되어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박태현 옮김 및 해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군포: 다함, 2020).

20 Abraham Kuyper, "*Ons program*" (Hilbersum/Pretoria: Höveker & Wormser, 5쇄 수정판, 1907).

1. 카이퍼의 영역주권

(1) 그리스도 절대 주권의 성격과 범위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 새교회(De Nieuwe Kerk)에서 신설 자유대학교[21] 개교연설에서 그 유명한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개념을 선언하였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다."[22] 이 선언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것이다.[23] 카이퍼는 인간의 전포괄적 삶의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갖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 하지만 이제 여기 영광스런 자유의 개념을 보십시오! **죄 없으신** 메시아의 절대적 주권은 동시에 지상의 **죄 있는** 사람의 모든 절대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삶을 각자 자신의 주권을 갖는 **고유한 영역으로** 나눔으로써 그렇게 합니다.[24]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의 성격과 그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첫째, 그리스도의 주권이 갖는 성격과 관련하여, 카이퍼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 주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절대적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한다고 선언한다. 카이퍼는 당시의 시대사조인 현대주의(Modernisme)에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19세기 말 현대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

21 자유대학교 설립의 원칙들과 과정, 그 현대적 시사점을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신학지남」 (2015년 여름호), 177-200.

22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71. 이 한글판의 부제는 프라암스마(L. Praamsma)가 표현한 것처럼 영역주권을 더욱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23 카이퍼는 영역주권 사상이 성경적 사상임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의 성구들을 나열한다. 요 18:37, 마 28:18, 롬 14:11, 고전 2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29-30.

24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0-31.

인본주의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였다.

> 1789년이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악당을 타도하라**"(*Ecrasez l'infâme*)는 볼테르(Voltaire)의 외침은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으로서, 프랑스 혁명 밑바닥에 깊이 숨은 사상이 표출된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철학자가 표현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든가, 국민의회의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ni Dieu ni maître*)라는 표어들 역시, 당시 인간 해방을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으로 선전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25]

프랑스 혁명은 일차적으로 부패한 군주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군주 대신 인간의 주권을 앞세운 국민의회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본주의 유혈혁명이었다. "이 근본적 혁명은 국민에게 주권자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 면류관을 쓴 주권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26] 이 인본주의는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의 이름으로 등장하였다.[27] 게다가 이러한 현대주의는 독일의 범신론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발전되고 강화되어 기독교 신앙과 삶을 파괴하고자 교회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1898년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스톤 강좌(Stone Lectures)에 초대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이러한 현대주의 원리에 맞서 대항할 원리로서 칼빈주의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고안품이나 창안품이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에서 발견되는 포괄적 원리이기 때문이다.[28] 카이퍼에 따르면, 칼빈주의는 로마교와 루터교 이 둘보다 **기독교 사상**을 더 정확하고 순수하게 구현한다.[29] 이런 칼빈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요약된다.

---

25 Kuyper, *Het Calvinisme*, 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27].
26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9.
27 Kuyper, *Het Calvinisme*, 77.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51].
28 Kuyper, *Het Calvinisme*, 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29].
29 Kuyper, *Het Calvinisme*, 8. "… omdat het de pretentie maakt, juister en zuiverder dan het Romanisme en Lutheranisme beide *de Christelijke idee* te belichamen."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39]. Cf. 14. "하지만 개혁주의 원리를 가장 예리하게 붙들고, 가장 충분하게 상술했으며, 가장 넓게 적용했던 이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역사는 제네바의 사상가를 가리키지 비텐베르크의 용감한 영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46-47].

둘째,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주권은 각자 자신의 주권을 갖는 인간 삶의 고유한 영역들로 나뉘어지므로 각각의 영역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세계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즉 인간적인 삶 "전면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물질적** 삶과 배후에 있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삶"의 영역에 미친다.[30] 인간 삶의 가시적인 물질적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등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일컫는 반면, 인간 삶의 비가시적인 영적인 영역은 양심의 영역, 도덕의 영역, 사유의 영역, 신앙의 영역들을 가리킨다.[31] 특히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서로 대립된 사상과 삶을 영위한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대결과 반제(Antithesis)로 나타난다.[32] 따라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념은 창조에 기초를 둔 '일반은총'과 서로 다른 세계관에 기초를 둔 대립과 긴밀하게 연관된다.[33]

(2) 국가 주권: 탁월성과 한계, 기원, 명암, 그리고 소명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 삶은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유기체로서, 삶의 각 영역은 자신의 용수철로 차축을 돌리는 톱니바퀴들이며, 이런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서로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하고 다면적이고 다양한 인간 삶이 생성된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이 다른 인접한 영역을 침해할 위험도 발생하며, 하나의 톱니가 덜커덕거리고 그에 연이은 톱니들을 비틀어 망가트려 전체적인 작동이 멈추게 된다. 카이퍼는 바로 여기서 특별한 권위 영역으로서의 국가의 주권과 그 등장을 정당화한다.[34] "인간 삶 전체를 둘러싸는 영역들 중의 영역"[35]

---

30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1.

3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1-32.

32 Klapwijk, "Abraham Kuyper on Science, Theology, and University", 239-40. Cf.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303-316.

33 맥코넬은 이 두 가지 용법들(일반은총과 대립)은 "혼동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시종일관 카이퍼의 사상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304. 참고,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小考)", 「개혁논총」 31권 (2014), 159-185.

인 국가가 지닌 권위의 기본적인 기능과 목적은 다양한 영역 사이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하며, 개인을 집단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권위는 이런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삶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들이 가시적인 건전한 상호 작용에 따라 물러나도록 만들고, 공의의 경계선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위는 개인의 삶이 집단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영역의 통제에 대해 그 개인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 그러므로 이런 국가의 주권은 개인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삶의 영역들에서 상호 정당한 관계를 규정하는 권세로서, 명령권과 강제력으로 이 모든 영역 **위에** 탁월한 것입니다.[36]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은 이처럼 다른 삶의 영역들 '위에' 탁월한 것이지만, 무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국가 주권은 각각의 다른 영역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은 다른 권위가 지배하는데, 이 권위는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로서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주권은 이런 영역들의 존재 목적과 성격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에 '매여있기' 때문이다.[37]

카이퍼는 프린스톤 대학교 스톤 강좌인 『칼빈주의』(1898)에서 국가 주권과 정부의 기원을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정부를 제정하셨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죄**에 대한 자신의 심오한 개념으로 국가 생활의 참된

---

34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2.
35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5.
36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3. 카이퍼는 정부가 지닌 삼중적 소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영역 상호간의 분쟁과 충돌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 (2) 영역 내부의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 (3) 영역을 가로질러 국가의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개인적** 부담과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도록 강요할 권리와 의무. Kuyper, *Het Calvinisme*, 88-89.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0].
37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3. 카이퍼는 "오로지 **죄 때문에** 정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Kuyper, "*Ons program*", 51.

> 뿌리를 드러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첫째, 국가 생활과 정부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친히 주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힘입어 국가 권력 안에 내재된 위험성을 우리들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만 한다.[38]

카이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정부가 지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지적한다.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의 유기적 본성과 달리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정부의 권위가 죄악된 인간에 의해 행사되기에 온갖 통치욕에 물드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과 정부가 없고, 규제하는 권위가 없는 사회는 지옥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수같은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부를 제정하신 것은 정부의 밝은 면이다.[39]

더 나아가, 카이퍼는 잠언 8:15과 로마서 13장 1-2절에 근거하여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 땅의 모든 정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 나옵니다.**"[40] 그리고 정부의 기본 임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 ... 하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의 관영(貫盈)에 대해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고자 행정관들을 제정하셨고, 이를 위해 정부에게 심지어 생명과 사망에 관한 엄청난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국과 공화국, 도시와 국가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립니다.[41]

정부에 대한 카이퍼의 이러한 확신은 스톤 강좌보다 약 20년 전에 출판한 『정치 강령』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의 확고한 신념에 따르면, 정부란

---

38 Kuyper, *Het Calvinisme*, 7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3-44].
39 Kuyper, *Het Calvinisme*, 7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3].
40 Kuyper, *Het Calvinisme*, 7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5].
41 Kuyper, *Het Calvinisme*, 7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6].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기에 그의 규례들에 매여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종교적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다."[42]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중재 없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사법권과 지도권을 발휘하신 이스라엘의 **신정**(神政, *theocratie*)을 의미하지 않는다.[43] 이런 맥락에서 카이퍼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scheiding)를 주장하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 (1)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은 더 이상 교회의 통일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2)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등장하는 각각 고유한 삶의 영역을 지니며, 따라서 서로의 영역에서 이리저리 강압적으로 행하실 권세가 없다. 그리고 (3) 둘 사이의 관계는 확고한 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규정되어야 한다.[44]

따라서 카이퍼는 개혁교회가 루터파나 로마교가 지향하는 콘스탄틴적 기독교 국가개념을 거부하는[45] 동시에 교회의 영향력이 황제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e)도 반대한다.[46]

(3) 영역주권

그렇다면 '영역주권'이란 무엇인가?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개혁파 원리로서

---

42 Kuyper, "*Ons program*", 385.

43 Kuyper, *Het Calvinisme*, 7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50]. Abraham Kuyper, *De Gemeene Gratie*, 3 vols,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902-4), I, 76.

44 Kuyper, "*Ons program*", 385-86.

45 Kuyper, *Het Calvinisme*, 57.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18]. 카이퍼는 "국가 교회"에 관한 그 어떤 개념도, 심지어 '개혁주의' 국가 교회 설립을 반대한다. Kuyper, "*Ons program*", 26, 384-85.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553. 리처드 마우는 "'콘스탄틴주의'는 교회-국가 연합의 통제 아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사회의 유대를 산산조각 내는 일을 조장하였기에 "우리는 반드시 항상 교회와 정치권력 사이에서 불건전한 -그리고 불신앙의-연합이 이루어질 콘스탄틴주의의 위험성도 함께 의식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Mouw,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164, 169.

46 Kuyper, "*Ons program*", 52-53.

성경의 요구와 칼빈의 전례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사상이다.[47] 다른 말로 하면, 영역주권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칼빈주의적 **신조**(credo)다.[48] 카이퍼의 개교연설인 '영역주권'은 아마도 카이퍼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글인 동시에 가장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글임에 틀림없다.

>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과연 타고난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들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포함한 언어적 기교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19세기 말 유럽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글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카이퍼의 '영역주권'이 가장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까닭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기독교 신앙마저 부정하고 상대화시킨 시대에 오직 성경에 확고한 기초를 둘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성경적 사상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다.[49]

카이퍼는 『칼빈주의』에서 '영역주권'이란 사회적 영역들이 각각 갖는 최고의

---

47 이 영역주권 사상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칼빈주의』(*Het Calvinisme*, 1898),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 전 3권, 1902-1904), 그리고 『왕을 위하여』(*Pro Rege*, 전 3권, 1911-1912)에서 더욱 정교하게 전개된다. 『일반은총』에서 카이퍼는 인류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국가와 일반 사회에 나타난 인간 삶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왕을 위하여』는 『일반은총』의 후속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인간 삶의 전체 진행에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 Abraham Kuyper, *Pro Rege* (Kampen: Kok, 1912), III, 589. 19-20세기의 영역주권 사상의 사회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학위논문을 참조하라. Jan Dirk Dengerink, *Critisch-historische onderzoek naar de sociologische ontwikkeling van het beginsel d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in de 19e en 20e eeuw*, Academisch proefschrift,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Kampen: Kok, 1948).

4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73.

49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185-86.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462. 브랫은 다른 곳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가장 기억할 만한 작품'(the most memorable piece)이라고 일컫는다.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30.

권위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최고 권위를 의도적으로 "**영역 주권**"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는 각 영역에서 이 최고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 위에 두는 것**이며, 국가는 여기서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자신의 권세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곧바로 느끼듯, 이는 우리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오한 문제입니다.[50]

카이퍼에 따르면, 사회적 영역들은 국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며, 그 영역들의 삶의 법칙 역시 국가의 우월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카이퍼는 '영역주권'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고 있다. "이 주권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주권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 삶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51] 따라서 카이퍼는 국가의 성격과 사회적 영역들이 지닌 성격의 정도 차이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52] 왜냐하면 사회적 영역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유기적' 삶에서 비롯된 반면, 국가와 정부는 죄로 인한 사회적 삶의 파괴를 억제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계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정부는 백성의 몸에서 유기적으로 자란 자연적인 머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백성의 몸통에 놓인 기계적인 머리입니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하나의 치료책입니다. 식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그 옆에 막대기를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자신의 내적 약화로 인해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53]

이런 맥락에서 카이퍼는 국가 주권와 사회적 영역들이 서로 알력을 갖고

---

50 Kuyper, *Het Calvinisme*, 8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0-61].
5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6.
52 Kuyper, *Het Calvinisme*, 82-8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1].
53 Kuyper, *Het Calvinisme*, 8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3].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정부는 자신의 기계적 권위로 사회적 삶 가운데 침투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기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을 점점 더 갖습니다. 이것은 국가만능주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사회적 삶은 점점 더 정부의 권위를 떨쳐 버리려고 시도하는데, 이런 노력은 이제 다시 기계적 권위제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 외에 다름 아닌 사회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54]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는 국가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둘의 고유한 독립성을 법률 속에 규정했다고 지적한다.[55]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은 법률 속에 규정된 것을 따라 "서로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섬기는 신성한 의무에 있어서 동일합니다."[56] 따라서 카이퍼는, 자연세계와 정신세계, 사회와 가정에서 절대적이며 거룩한 다른 여러 종류의 권세와 나란히 등장한 정치적 권세가 다른 영역에서 주된 통치를 행사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한다.[57]

카이퍼에 의하면, 결국 삶의 각 영역들이 자유 가운데 번성하느냐 국가의 압제 아래 신음하느냐의 관건은 그 영역들 자체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 그 영역들이 도덕적 장력(張力)을 갖고 있다면, 밀려들어**갈 수** 없으며, 위축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종의 근성이 노예의 족쇄에 매이게 되면, 불평할 권리마저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각 영역의 경계선에서 위협을 받듯이 **죄**로 인해

---

54 Kuyper, *Het Calvinisme*, 85.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4-65].
55 Kuyper, *Het Calvinisme*, 85-8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5].
56 Kuyper, *Het Calvinisme*, 90.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2].
57 Kuyper, "*Ons program*", 38. Kuyper, *Het Calvinisme*, 90-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2-73].

각각의 영역 내부에서도 최소한 동일한 정도로 위협을 받습니다.[58]

카이퍼는 삶의 각 영역이 자유를 잃게 되는 주된 이유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공격에 있어서 국가는 단지 공범자일 뿐입니다. **주된** 범인은 의무를 망각한 시민 자신으로, 죄와 감각적 쾌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59]

2. 영역주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카이퍼의 이해는 개혁파 신학 원리에서 비롯되었다.[60] 이 개혁파 신학원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영역주권으로 일컬어지는데, 영역주권은 각기 고유한 영역 혹은 범주 안에서 "고유한 주권자를 지닌 자신만의 범위를 형성"한다.[61] 그리고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는 **유기체**(*Organisme*)가 아닌 **제도적 기관**(*Instituut*)으로서 이해된다.[62]

카이퍼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재직했던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 윗쪽에 기록된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De vrije Kerk in den vrijen Staat)라는 모토 속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드러냈다.[63] 하지만 카이퍼는 현실적으로 국가 안에서의 교회의 주권에 대한 판단이 골치 아픈 문제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를 막고 근절"하는 임무를 정부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64] 종교 문제에 관해 교회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이 문장에 대해 1896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1905년 개혁교회 총회 결의를 따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5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6.
59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6-47.
60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57.
6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2.
62 Kuyper, *De Gemeene Gratie*, III, 96-97, 285.
63 Kuyper, *Het Calvinisme*, 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3].
64 Kuyper, *Het Calvinisme*, 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4].

제 36조에서 제거되었다.[65]

카이퍼는 국가와 정부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통치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정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머뭅니다. 정부는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인정해야 하며, 그 권력은 그분에게서 파생된 것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위엄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신성모독을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기도와 감사의 날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교회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인정합니다.[66]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 아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국가와 정부의 소명이다.

> 정부는 교회의 부속 기관도, 교회의 추종자도 아닙니다. 국가의 영역 자체는 주님의 위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독립적 의무는 이 국가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교회의 영역이 신성하고 그 밖에 있는 국가의 영역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 모두 각각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역에서는 오로지 권세를 입은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67]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가 국가의 영역을 세속적 영역으로 보는 이원론을 배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칼빈주의는 재세례파의 "기피"(Mijdinghe) 교의를 반대하며, "칼빈주의자는 교회 안에 갇혀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오히려

---

65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6조는 정부가 단지 시민적 문제만 아니라 교회적 문제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I, 433-34.

66 Kuyper, *Het Calvinisme*, 95.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0].

67 Kuyper, *Het Calvinisme*, 9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1-82].

칼빈주의자가 지닌 높은 소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최상으로 발전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람에게 존중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68]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 역시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카이퍼는 『정치 강령』에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권리들 가운데 국가는 "교회가 방해를 받지 않고 영적인 사역을 완수하도록 안식일을 허용하고", 전염병이나 대홍수, 전쟁의 위험이나 다른 국민적 재난이 발생할 때 "교단의 중재를 통해 국가 전체를 위한 참회와 기도의 날들을 정하는"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69]

카이퍼는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가 갖는 이중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 첫 번째 요구로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일에 교회들을 이해관계자로 여기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구로 정부는 자신의 시민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준수하고, 하나의 종교적 그룹이 일부일처제의 문제나 민법의 다른 어떤 점에서 **사회적 사실로** 국가법에 반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70]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또 다른 영역인 교회의 문제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카이퍼는 정부가 종교 단체의 문제와 요구가 국가법에 위배될 때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종교가 시민 생활을 평안하게 해야 할 국가의 의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결론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서로 나란히 존재하며,

---

68 Kuyper, *Het Calvinisme*, 6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28-29]. 전준봉, "칼뱅과 재세례파의 교회론 연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50 (2019), 101-31. 칼빈과 재세례파에 관한 표준적 연구서로서 다음을 참고하라. W. Balke, *Calvijn en de doperse radikalen* (Amsterdam: Ton Bolland, 1973).

69 Kuyper, "*Ons program*", 392.

70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5-86].

서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계선을 그어 제한합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71] 카이퍼는 정부의 권위가 "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성령의 검이 아니라 상하게 하는 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권위가 교회의 영역주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72] 카이퍼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창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둘 다 죄 때문에 존재한다. 즉,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특별은총(*Particuliere Genade*)에 정초하는 반면, 국가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은총(*Gemeene Gratie*)에 기초한다.[73]

3. 한국 교회와 국가에 대한 영역주권 개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관점에서 21세기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1) 약 140여 년 전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개혁파 원리에 바탕을 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일종의 문화변혁과 문화혁명 운동이었다. 카이퍼는 당시 인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주의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해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간다.[74] 이런

---

71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6].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부써(Martin Bucer, 1491-1551)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먼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 황대우,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써의 견해", 「갱신과 부흥」 21 (2018), 70.

72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4]. 안인섭, "교회와 정치 참여: 칼빈을 통해 조명하는 교회의 정치 참여", 「역사신학논총」 16권 (2008), 31-51.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정치 참여는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1) 국가의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2) 국가의 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1) 불의한 정부에 대해 불복종을 전개하고 (2)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73 Kuyper, *De Gmeene Gratie*, III, 98-100, 118, 214.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556. 유태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00.

74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9).

시대정신 가운데 한국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금 주장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in)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of) 자가 아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은 소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from) 도피, 재세례파적 '기피'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가정, 학교, 직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마 5:13-16).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경건의 골방이나 교회당 울타리에 갇힐 수 없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된 구원의 사사화(私事化)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넓은 사회의 일상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한다.[75]

(2)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 카이퍼는 『반혁명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1916-17)에서 교회와 국가를 위한 칼빈주의의 탁월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칼빈주의는 교회를 위한 근본 원리인 동시에 국가적 삶을 위한 근본 원리이다. 칼빈주의는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머물고, 민주적으로 국가적 삶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칼빈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체계란 존재하지 않는다.[76]

따라서 중앙 정부의 권력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서[77]

---

75 베이코트는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영역주권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의 청기지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공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Bacote,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227-37.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67 (2013), 31-73.

76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I, 485-86.

교회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주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인 민주 헌법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국가 모두 국가의 주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즉, 정부가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할 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혹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국가의 근본 원리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대립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 그 어떤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단답형으로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영역주권 사상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교회는 국가가 사회의 '유기적' 영역들의 보존과 조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계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국가와 정부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가정 등을 임의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삶을 빨아들이는 '기생식물'(woekerplant)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78] 2) 국가는 임의적으로나 자율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주권을 발휘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종교적 삶과 관련된 국회의 법률 제정,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성경적 원리와 어긋나는 법률 제정에 연관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비추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용기있게, 지혜롭게 저항해야 한다.[79] 왜냐하면 "정치적 권세 자체가 다른 영역들 가운데 하나를 주로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규례를

---

77 Bong Ho Son, "Relevance of Sphere Sovereignty to Korean Society", in Cornelis van der Kooi & Jan de Bruijn, eds., *Kuyper Reconsidered: Aspects of his Life and Work* (Amsterdam: VU Uitgeverij, 1999), 182. 손봉호는 이 소논문에서 한국에서의 카이퍼 사상의 역사적 수용을 소개하고 '영역주권'의 효과적 접목으로서의 NGO 사역을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로 확장시켜야 할 것을 주장한다.

78 Kuyper, *Het Calvinisme*, 8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9].

79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옮김,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IV. 20. 31.

범하는 것이며,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80] 3) 결국 국가 주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인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의 법률 행사를 통해 드러나므로, 교회는 국가 운영의 주체인 사람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영역주권 개념에 기초한 정치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81] 다시 말하면, 21세기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깊이 숙고하고 카이퍼의 정치관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82] 카이퍼는 이런 교육을 위해 개혁주의 원리 위에 기초한 종합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였다.[83]

(3)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국가와 정부를 제정하셨음을 기억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영역과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역시 교회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84]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방역지침의 운용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방역지침과 그 운용이 종교의 영역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

80 Kuyper, "*Ons program*", 38.

81 손봉호는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둘로 구분하는데, 한국의 상황과 기독교인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기독교정당 활동을 통한 협의의 정치참여보다는 기독교적 시민운동을 통한 광의의 정치참여를 주장한다. 손봉호,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한계", 「신앙과 학문」 2권 3호(1997), 9.

82 안인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0집 (2011), 223.

83 자유대학교 설립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인데, (1) 개혁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다. (2) 국가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한다. (3) 종합대학을 설립한다. (4)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학교여야 한다.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99-102. 최근에 카이퍼에 대한 전기를 저술한 여룬 코흐(Jeroen Koch)는 자유대학교 설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유대학교는 특별한 계획이었다. 카이퍼 자신의 반혁명당 창당보다 더 나은 것이며, 또한 '돌레안찌'(Doleantie, 애통)를 통한 자신의 개혁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자신의 무한하고 원대한 야망을 세상 개혁의 칼빈주의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Koch,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221.

84 최윤배는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강조하되 그 각각이 속한 영역을 다르게 구분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속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속질서에 속하고,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국가나 정부는 창조질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최윤배, "개혁전통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신논단」 24 (2005), 243.

즉 예배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회는 단호히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경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한 투쟁은 단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그 방식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폭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희생과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다.[85]

(4) 국가는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위임된' 권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소명으로서 사회적 영역들의 고유한 '영역주권'을 존중하고 각각의 영역들의 경계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별히 국가는 교회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반면, 특정 종교 집단의 국가법을 거스리는 불법적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 위력과 침해에 마땅히 저항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교회 자신의 도덕성 상실로 인한 불의한 국가 주권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회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는 일은 교회 자체의 영적 능력을 상실한 반증이다(고전 6:1-7). 게다가 교회의 도덕적 상실은 오히려 국가 정권과 영합(迎合)하여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20세기 후반 한국 보수교회가 자신의 보신(保身)에만 급급하여 국가의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고 심지어 지지하기조차 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86]

---

85 Mouw,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187-92.

86 이런 반성은 단지 한국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정책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반성이 촉구된다. 송영목, "교회와 국가의 관계: 아파르트헤이트와 신약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51 (2020), 10, 43-44. Craig G. Bartholomew, *Contours of Kuyperian Tradition: A Systematic Introduc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7), 5, 특히 152-57.

III. 나가는 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상 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년 세월의 오랜 논쟁의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의 방역과 교회의 대면예배로 빚어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요청된다. 약 100년 전 서거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오늘날 갈등 속에 있는 한국 사회에 건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카이퍼는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칼빈주의 '영역주권'을 선언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사회적 영역들, 특히 교회와 국가 역시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의 통치 아래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로써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란 단지 경건의 골방이나 교회당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세상과 담을 쌓아 분리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성경은 재세례파적 '기피'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오늘도 친히 은혜와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가르친다.

교회와 국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각기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와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역주권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사회적 영역들의 상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영역 내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풍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 상대자로 알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률에 따른 국가 주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만일 국가가 불법적으로 교회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교회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은 반드시 섬김과 자기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 게다가 교회는 자신의 영역주권이 침해받

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국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도덕의 장력을 든든하게 길러야 한다.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회고하는 것은 문화 혁명가 카이퍼의 탁월한 사상 때문이 아니다. 그가 선포한 '영역주권' 자체가 개혁파 원리, 성경적 원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삶을 파괴하려고 도전하는 이때, 한국교회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은혜로운 섭리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참고문헌]

Bacote, Vincent 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이의현·정단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서울: SFC, 2019.

Balke, W. *Calvijn en de doperse radikalen*. Amsterdam: Ton Bolland, 1973.

Bartholomew, Craig G. *Contours of Kuyperian Tradition: A Systematic Introduc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7.

Bavinck, Herman. *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G. Ph. Zalsman, 1883.

Bratt, James D.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Bratt, James D.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Cambridge: Wm. B. Eerdmans/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Brinkman, M. E. & Van der Kooi, C. *Het calvinisme van Kuyper en Bavinck*. Zoetermeer: Meinema, 1997.

Calvin, J.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옮김.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Colijn, H.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Amsterdam: Dagblad en Drukkerij De Standaard, 1934.

De Bruijn, Jan. *Abraham Kuyper: Een beeldbiografie*. Amsterdam: Bert Bakker, 2008.

Dengerink, Jan Dirk. *Critisch-historische onderzoek naar de sociologische ontwikkeling van het beginsel d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in de 19e en 20e eeuw*. Academisch proefschrift.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Kampen: Kok, 1948.

Klapwijk, Jacob. "Abraham Kuyper on Science, Theology, and Universi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Sioux Center: Dordt College Press, 2013, 221-245.

Koch, Jeroen.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Amsterdam: Boom, 2006.

Kuyper, Abraham. *Het Calvinisme*.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n.d.

_____. *Het Calvinisme*. 박태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군포: 다함, 2021.

_____. "*Ons program*". Hilbersum/Pretoria: Höveker & Wormser, 5쇄 수정판, 1907.

_____.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vols. Kampen: J. H. Kok, 1916-17.

_____. *Pro Rege*. 3 vols. Kampen: Kok, 1911-12.

_____. "De Rede van Dr. Kuyper". In *Gedenkboek*. Amsterdam: G. J. C. Herdes, 1897, 59-77.

_____.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94.

_____.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박태현 옮김 및 해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군포: 다함, 2020.

McConnel, Timothy I.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Sioux Center: Dordt College Press, 2013: 303-316.

Mouw, Richard J.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옮김.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SFC, 2015.

Praamsma, L. *Let Christ Be King*. 이상웅·김상래 옮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있는사람, 2011.

Romein, Jan & Annie. *Erflaters van onze beschaving*. Amsterdam: E. M. Querido, 1976.

Snel, Johan. *De zeven levens van Abraham Kuyper*. Amsterdam: Prometheus, 2020.

Son, Bong Ho. "Relevance of Sphere Sovereignty to Korean Society". In Cornelis van der Kooi & Jan de Bruijn. eds. *Kuyper Reconsidered: Aspects of his Life and Work*. Amsterdam: VU Uitgeverij, 1999, 179-189.

Vanden Berg, Frank. *Abraham Kuyper*. 김기찬 옮김.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나비, 1991.

권태경.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과 역사 이해". 「성경과 신학」 제51권 (2009), 111-137.

김명배.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 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선교와 신학」 20집 (2007), 127-154.

김명혁. "루터의 두 王國에 대한 槪念 - 政治倫理的 側面". 「성경과 신학」 제1권 (1983), 153-172.

김영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 공공신학으로서의 칼빈주의".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향". 자료집. 8-31.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小考)". 「개혁논총」 31권 (2014), 159-185.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신학지남」 (2014 봄호), 180-207.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2)". 「신학지남」 (2014 가을호), 231-255.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신학지남」 (2015 여름호), 177-200.

손봉호.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한계". 「신앙과 학문」 2권 3호(1997), 5-11.

송영목. "교회와 국가의 관계: 아파르트헤이트와 신약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51 (2020), 9-52.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9.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역사신학 논총」 제7집 (2004), 11-42.

_____. "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개혁주의적 고찰: 어거스틴(354-430)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3 (2017), 198-222.

_____. "교회와 정치 참여: 칼빈을 통해 조명하는 교회의 정치 참여". 「역사신학논총」 16권 (2008), 31-51.

_____.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0집 (2011), 183-229.

유태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혁논총」 54권 (2020), 77-103.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127-155.

이상규.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갱신과 부흥」 10 (2012), 177-205.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신학지남」 제 80권 2집 (2013 여름호), 201-210.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2):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분석적 고찰". 「신학지남」 제 84권 2집 (2017 여름호), 69-121.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67 (2013), 31-73.

이은선. "한국교회의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사상 수용과 연구".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향". 자료집. 32-54.

전준봉. "칼뱅과 재세례파의 교회론 연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50 (2019), 101-131.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최윤배. "개혁전통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신논단」 24 (2005), 223-247.

황대우.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써의 견해". 「갱신과 부흥」 21 (2018), 43-77.

[Abstract]

Abraham Kuyper's Concept of Sphere Sovereignty: Its Significance for Modern Da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Tae Hyeun Park
(Cho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in Korean society caused by Covid 19 through Abraham Kuyper's concept of 'sphere sovereignty'. Kuyper declared sphere sovereignty in his speech at the opening of the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which is a biblical teaching that Christ has absolute sovereignty i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thinking. Remembering that their existence originated from God, the church and the state must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demonstrate God's sovereignty and glory according to the mission they are assigned to under God's call. On the one hand, remembering that the state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because of human sin, and with its sphere sovereignty received from God, by controling the boundaries of the social areas based on the law, and by protecting the weak from the stronger within the area, and by maintaining justice the state must promote human life to flourish. In particular, recognizing the church as a dialogue partner for the glory of God, the government needs to listen to her voice, and strive for the welfare of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with proper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

church must respect the exercise of state sovereignty under the law. If the state, however, illegally invades the church and the realm of faith, the church should not hesitate to struggle for freedom. The manner of this struggle must be the way of the cross based on service and self-sacrifice. In addition, the church herself must cultivate the tensility of faith and morality in the Word of God so that her sovereignty is not violated and she also does not become a slave of the state.

Key Words: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Church and State, Law, Struggle for Freedom, Moral Tensility